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2. 26.(목) 11시

## 현장의 제안이 정책으로...고려인 청년 리더십 캠프 열려

- 역사 이해부터 취업 특강까지...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첫 리더십 캠프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)

- 20세기 초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아픈 역사를 가진 고려인 동포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인천대학교(총장 이인재) RISE사업단과 함께 2월 26일(목)부터 27일(금)까지 1박2일간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청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.
  -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 행사가 아니라, ‘과거 이해(고려인 이주역사)-진로 설계-네트워크 형성’을 하나로 묶은 종합 프로그램이다.
  - 1일 차에는 재외동포 정책 안내와 함께 진로·취업 특강,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. 2일 차에는 고려인 이주사 특강을 듣고, 인천 이민사 박물관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탐방하며 우리의 이주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.
- 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 2월 5일(목) 인천 지역에서 개최한 재외동포청 장관과의 동포간담회에서 고려인청년들이 재외동포청에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.

○ 재외동포청은 “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,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“이번 캠프는 현장의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한 사례이며,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행사 기간에는 2026년 신규 추진 중인 ‘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·정착 지원 사업’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했다.

○ ‘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·정착 지원 사업’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, 모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국내·외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쏠(전)주기 지원사업이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지자체,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국내 귀환 동포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,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팀 장	김동욱 (032-585-32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동 (032-585-3281)
			주무관	홍혜원 (032-585-3282)

